

# 제35차(2025년) 정기총회 회의록

문서번호		사무차장	사무국장	이사장
결	담 당	/	김혜영	방지영
재	박수진		김혜영	방지영
협	경영지원팀장	비고		
조	임해숙			

- 일 시 : 2025년 2월 17일(월) 14:00
- 장 소 : 아르고꿈밭극장
- 참 석 : 재적(대의원)구성원 141명, 참석 40명, 위임 35명, 불참 66명
- 의 장 : 방지영((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재적(대의원)인원 141명 중 참석 40명, 위임 35명으로 총 75명으로 성원 구성
  - 구 성 : 정관 제4장(총회) 제20조(구성)에 따라 회원으로 구성
  - 성 원 : 정관 제4장(총회) 제23조(의결정족수) ①항에 의거 성원

## 2. 묵념(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인 선영)

## 3. 개회사

## 4. 의결 사항 1

- 제34차(2024) 정기총회 회의록

## 5. 2024년도 사업보고

### ■ 이사회 회의록

- ※ 4차 긴급 이사회는 기존 지원사업(방방곡곡-한문연/신나는 예술여행-예경)들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긴급히 의견을 모으고, 해당 내용을 문체부에 전달하였음.

### ■ 국내위원회 / 국제위원회 운영 외

### ■ 사무국 주요 업무 일지

### ■ 사업 보고

- ※ 총회 자료집 참고

### ■ 지회 현황

### ■ 2024년도 회원(임원) 관리

- ※ 협회 특성상 개인/단체의 구분이 적합하지 않다는 고민이 있음. 회원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회원 규정을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집중하고자 함.

- ※ 정책의 변화 등 어려운 상황으로 회비 납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81%→ 61%)하였음. 현장 상황을 지켜보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고자 함.

### ■ 협약 체결

## ■ 규정 개정

※ 규정 개정은 이사회 승인사항이나, 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주제	안건 및 토의 내용	비고
회원자격규정 개정	<p>발의 : 박정용(15대 집행부 이사진, 신규협회원 소위원회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단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현 시점의 심사 규정 개정의 필요성 의견을 수용하여 어린이청소년공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수정 및 삭제하였음.</li> </ul>	
지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개정(안)	<p>발의 : 나숙경(15대 집행부 부이사장, 지회 운영 소위원회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사단법인 설립 요건에 2개 지회가 필수였음. 시대의 변화, 본 협회에 맞는 지회 운영의 필요성 대두, 현행 지회 신규회원 가입을 저조, 사업 진행 미비, 본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2차례의 이사회 이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개정안의 큰 방향성은 지회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므로 행정적인 부분을 본부에서 진행하고, 지회의 의견을 이사회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 구조로 가고자 함.</li> <li>※ 이하 자세한 사항은 총회 자료집 69p~75p 참고</li> </ul> <p>→이진영(극단 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회의 존폐문제에 대한 논의 충분히 이해하고, 방향성에도 공감함. 현재 지회의 의견은 알 수 없으나, 4조 2항의 지회장을 본부에서 임명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li> </ul> <p>→ 나숙경(15대 집행부 부이사장, 지회 운영 소위원회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에서도 찬반논의를 많이 진행하였고,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의견주시기를 바램. 10여년 이상 지회의 독자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원활한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여 그 부분을 보완하고, 본부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기에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였음.</li> </ul> <p>→ 방지영(15대 집행부 이사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지회의 경우 참석율이나 사업진행이 매우 저조함. 다른 지회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도, 가입단체가 적어 지회장의 업무가 과중되는 형태로, 추후 지역에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늘어날 수 있는가 고민이 됨. 앞으로도 변호사인 사외이사님의 법률적 자문이나 타 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심도있게 고려하고자 함. 전 이사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음.</li> </ul> <p>→ 김병호(아시테지 코리아 전 이사장, 즐거운사람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회 운영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음. 지회장 임명이 요즘 세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존중하여 진행해왔던 것이고, 총회에 귀한 걸음해주신만큼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함. 경기지회의 부회장들도 왕성히 활동하는 단체이니 책임있는 역할로 아시테지가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램. 지회 가입단체의 의견을 받아 전체 회원들이 공유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결론이 나기를 바램. 지회 수의 변동이 사단법인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방지영: 현재는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정리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함. 회비 납부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사회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 이후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공공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시장이 바뀌었기에 그런 현실을 우리가 스스로 개선하는 데에는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음.</li> </ul>	

주제	안전 및 토의 내용	비고
<p>지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개정(안)</p>	<p>→ 송인현(아시테지 코리아 전 이사장, 극단 민들레) · 이진영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고려가 필요함. 오히려 이러한 개정이 지회를 활성화하고, 운영의 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신규 지회를 개설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음.</p> <p>→ 채정규(15대 집행부 이사진, 지회 운영 소위원회 위원장) · 지금 운영상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경기지회인데, 앞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기지회 부회장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을 말씀주셨는데, 경기지회 회원 중 일부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심지어 경기지회장님이 바뀐 줄 알고 계신 상황.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현재 정관상에는 직선제로 독립지회를 만드는 방식이라 지회장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운 구조. 개정안이 자칫 본부가 위압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지회와 본부의 협력-원원-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람.</p> <p>→ 방지영(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 · 자료에서 보듯이 경기지회는 이전 집행부 때부터 문제가 있었음. 김숙희 전 이사장 시기 사고지회로 결론이 났다가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하였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 이번 집행부에도 이사회에서 사고지회로 잠정 논의되었으나 팬데믹으로 더 기다려드렸었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이해해주시기를 바람.</p> <p>→ 김석홍(15대 집행부 이사진, 지회 운영 소위원회 위원) · 개정안에는 임명만 있고 면하는 것은 없어서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더 보충되어야 할 부분들을 차후 논의 때 이야기했으면 함.</p> <p>→ 김병호(아시테지 코리아 전 이사장, 즐거운 사람들) · 지회 회원(부회장)들이 지회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책을 맡은 회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사안임. 회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협회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기를 촉구함.</p>	

## 6. 감사보고

- 사무처리, 회계 전반은 더욱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의 일반적인 관리와 회계 장부와 금액의 일치, 영수증 관리 등이 이상 없이 관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23년에 비해 지원금 수입은 증가했고 공연 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현 상황에 맞는 최선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관객 개발과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관객을 극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총회 자료집 p.76 참조

## 7. 의결 사항 2

내용	찬성	반대	결과
1. 2024년 결산	40	-	인준
2.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40	-	인준

※ 정관 제4장(총회) 제23조(의결정족수) ①에 따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2024년 결산의 재무상태표는 지난 총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주제	안건 및 토의 내용	비고
2024년 결산	<p>발의 : 박종우(박종우청소년극창작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현빌딩의 임차료가 큰데, 어떤 것인지? 지금 아시테지 통장에 빛이 얼마나 있는지?</li> <li>→ 방지영(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li> <li>· 2020년 팬데믹 때 내지 못한 임차료로, 보증금에서 제하는 돈으로 빛이 아님. 지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임. 다만 지원금만으로는 사무국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임차료로 사용할 수 없어 어려운 상황임. 전문인력지원사업도 없어졌고, 경력자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다른 협회들, 문체부 등과 함께 이야기해보려함. 예술위원회는 그나마 나운데,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 등 지자체는 단기용역 말고는 불가능함.</li> <li>→ 김병호(아시테지 코리아 전 이사장/ 즐거운사람들)</li> <li>· 다른 단체도 코로나 이후로 퇴사나 대출이 많은 상황임. 수익을 높이는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서 고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임.</li> <li>→ 방지영(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li> <li>· 그것이 애로사항임. 고정지출을 줄이려면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존재감이 사라져서 현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많은 고려가 필요함. 작년에는 기업기부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쉽지 않음.</li> <li>→ 김병호(아시테지 코리아 전 이사장/ 즐거운사람들)</li> <li>· 사업을 회원들과 연대하여 고정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함.</li> <li>→ 방지영(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장)</li> <li>· 현재도 예술로 소풍 등 회원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으나, 행정을 함께할 수는 없어 한계가 있는 듯함.</li> <li>→ 김병호(아시테지 코리아 전 이사장/ 즐거운사람들)</li> <li>· 후원회 활성화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음.</li> </ul>	

8. 기타 안건 및 토의

9. 폐회

본 의안 및 경과요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기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2025. 2. 17.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의장 이사장 방 지 영

